

#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

이아람찬\*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헤게모니적 남성성
3.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남성 정치
4. <미녀와 야수>에서 나타난 남성성
5.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언급한 대로 지배적 이념이 한 사회에 종속된 이들의 삶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을 통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성의 유형을 찾는 데 있다. 그리고 코넬(R. W. Connell)은 그람시의 개념을 남성성과 연결시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으로 발전시켰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종속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재현된 다양한 남성성을 구분하고, 특히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한편 코넬의 네 가지 남성성의 분류는 남성 그룹이라는 범주에서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그리고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1991)에 나타난 지배적 남성성과 피지배적 남성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스틴(Gaston)과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 모두 공모적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모리스(Maurice)는 지배 집단으로부터 거세된 종속적 남성성에 들어가게 되며,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모두를 지닌 양가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디즈니 속에 나타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기반으로 소프트바디에 의한 하드바디의 번복을 더디게 만들고 오히려 하드바디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주제어: 헤게모니, 디즈니, 남성성, 코넬, 그람시, 미녀와 야수

\* 본 논문은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년 정기 춘계 종합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 I. 들어가는 글

디즈니(Disney)<sup>1)</sup> 최초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 Snow White>(1937)>부터 최근 <공주와 개구리 The Princess and the Frog>(2009)까지 젠더 담론과 관련해서 디즈니는 성역할고착화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디즈니 역사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이분법적인 젠더에는 변함이 없다. 디즈니는 어린이와 성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에 관객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디즈니는 더욱 보수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무명의 관객으로부터 숏한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디즈니가 그려가고 있는 남녀의 이미지는 점점 더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소년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남성애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강인한 힘의 논리를 앞세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위축될수록 나중에 아들이 문제에 직면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1980년대 미국 정치와 문화의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아들은 남자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미국 남성의 모범답안은 1980년대 할리우드 남성 캐릭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남성성의 개념을 시험하고, 수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sup>2)</sup> 결국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시대는 과장된 남성 이미지를 양산함으로써 1970년대 나약했던 남성성을 지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남성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려 했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 할리우드 영화는 강한 남성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디즈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성을 조명하고, 특히 1990년을 전후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르크 시스트인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hegemony)는 지배적 가치관이 피지배자의 삶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로버트 코넬(Robert W. Connell)<sup>3)</sup>은 그람시의 이 개념을 남성성과 연결시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발전시켰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종속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그람시와 코넬의 이론을 통해 접근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히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ast>(1991)에 재현된 다양한 남성성을 살펴볼 것이다.

## II. 헤게모니적 남성성

1) 이 논문에서 디즈니는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영화 제작사 또는 제작사의 총체적인 작품을 의미한다.

2) Bly, Robert Bly, 1990, Jeoffords, Susan Jeffords, 1994, p.23에서 재인용.

3) 코넬은 호주 시드니대(University of Sydney) 교수로 남성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는 현재 Robert라는 이름을 버리고, Raewyn으로 개명했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헤게모니는 그리스어로 '지도력(leadership)'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서 출발했으며, 이후 그람시가 보다 체계화한 이론이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했으며,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지만 무솔리니 정권에 의해서 1926-1937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수고 Prison Notebooks』라는 에세이집으로 그의 이론을 정리했는데,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헤게모니의 개념도 이때 주장된 것이다. 그람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한 그룹은 '지배(domination)'와 지적·도덕적 지도력(intellectual and moral leadership)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한다."<sup>4)</sup> 그러므로 헤게모니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력을 의미하는 단순한 지배와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람시는 이러한 단순 지배에 더하여 피지배자의 동의 혹은 합의에 기반을 두는 지적·도덕적 지도력을 첨가하여 헤게모니개념을 완성시켰다.<sup>5)</sup> 이와 관련해서 존 스토리(John Storey)는 지배 그룹이 피지배 그룹에 대해 리더십을 통해서 능동적 지지를 받으며, 사회전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석하고 있다.

헤게모니 개념은 그람시가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수감되어 있을 때 전개되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치적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발전된 서구민주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헤게모니란 지배적 계층(들)이 단순히 사회를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는 사회에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지배계층이 현재의 권력구조에 자신들을 묶어두는 가치나 이상, 목적, 문화적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sup>

그렇다면 헤게모니는 지배와 피지배층 간에 어떤 물리적 힘의 관계도 성립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김성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헤게모니가 물리적 힘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람시는 정상적인 형태의 헤게모니는 물리적 힘과 합의가 결합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석적으로 강제와 힘이 지배의 핵심적 차원이라면 헤게모니에는 지적·도덕적 지도력에 의한 자발적 합의가 그 본질적 속성이 된다. 따라서 헤게모니를 좁은 의미에서 규정한다면, 그것은 지적·도덕적 지도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규정하게 되면, (지적·도덕적) 지도력과 (물리적 강제와 힘으로서의) 지배가 결합된 통치체계 혹은 지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sup>7)</sup>

이러한 그람시의 헤게모니는 남성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1982년 케슬러(Kessler)와 코넬 등이 호주 고등학교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에서 처음으로 남성성과 관련해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코넬은 남성의 몸과 관련해서 헤게모니를 연구했으며, 호주 남성 노동자의 성역할에 대한 논쟁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1985년 캐리건(Carrigan)과 코넬 등은 기존 문학에서의 고전적 남성 역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남성성의 다

4) Antonio Gramsci, 1971, p.57.

5) 김성국, 1991.4, p.217.

6) Storey, John, 박모 역, 1994, pp.171-172.

7) 김성국, 앞의 글, p.217.

양성을 제시하고자 했다.<sup>8)</sup>

마르크스에서 시작한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최근 남성성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연구자마다 약간의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베일 프랑크(Bale Frank)의 경우는 '헤게모니적/이성애적 남성성(hegemonic heterosexual masculinity)'<sup>9)</sup>으로 개념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면 신시아 콕번(Cynthia Cockburn)은 '남성 헤게모니(male hegemony)'<sup>10)</sup>로, 도미넬리(Dominelli)와 골린스(Gollins)는 '헤게모니적 남성들(hegemonic men)'<sup>11)</sup>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들이 점차 코넬이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남성은 보다 남성적이지만 어떤 남성은 보다 덜 남성적이다라고 말을 하곤 한다. 이렇듯 남성성(masculinity)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남성성들(masculinities)로 구성되어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남성성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성다움(maleness)이라는 생물학적 개념과 다르게, 남성성은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성은 남성다움의 생물학적 해석이 아닌, 문화적 해석이며 따라서 한 남성이 사회나 국가에 소속됨으로써 학습되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성격의 남성성은 역사적으로 일련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으며, 또한 남성 스타일의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예를 들면, 가족 중심의 생산 체제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남성의 가족부양자(breadwinner)라는 개념은 19세기 후반 산업자본주의 도래와 함께 들어온 개념이다.<sup>13)</sup>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남성의 역할이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남성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코넬은 다음 네 가지 정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먼저, 본질적 정의(essentialist definitions)는 남성성을 위험감수, 공격, 책임, 무책임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본질의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실증적 접근(positivist definitions)은 남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 접근법은 남성적 삶의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남성성의 패턴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s)는 적어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젠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호학적 접근(semiotic approaches)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기호체계를 통해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변별적 측면을 기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성성은 오직 젠더 시스템에서만 존재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구조적 틀은 남성 그룹 안에서 조성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코넬에 의하면, 남성 집단 내에서 각각의 남성들의 관계를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그리고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여타 남성 그룹과 여성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종속적 남성성(subordinated masculinity)은 젠더와 관련해서 헤게모니를 획득하지

8) Connell, R. W. & J. W. Messerschmidt, December 1, 2005 참조.

9) Frank, Bale, 1987 참조.

10) Cockburn, Cynthia, 1991 참조.

11) Dominelli, L. & T. Gollins, 1997 참조.

12) Beynon, John, 2002, p.1.

13) Leach, Mick, 1994, p.36.

14) Connell, R. W., 1995, pp.68-71.

못한 남성 그룹을 지칭한다. 특히 서구사회의 이성애적 남성성과 동성애적 남성성의 관계에서 헤게모니는 이성애적 남성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성애적 남성성은 상대적으로 비지배적 남성성에 위치하게 된다. 헤게모니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한 두 남성성은 힘의 소유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적 남성성(complicit masculinity)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으로부터 일부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헤게모니를 가진 남성은 소수인 반면, 공모적 남성성은 다수의 남성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marginalized masculinity)은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동성애자와 다인종 사회의 경우 소수 인종이 이 개념의 남성성에 포함된다.<sup>15)</sup> 여기서 종속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같은 인종 내에서 일어나는 종속적 남성성과는 다르게 주변화된 남성성은 인종과 관련이 깊다. 그렇다고 해서 종속적 남성성이 반드시 같은 사회 또는 인종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인종 사회에서 종속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성애의 경우도 두 가지 남성성에 모두 해당된다.

코넬에 따르면 남성성은 남성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연대(alliance), 지배(dominance), 종속(subordination)과 관련되어 있다”<sup>16)</sup>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대척점을 떠나 남성 집단 내에서도 새로운 위계질서가 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의 남성성 구분은 현재 서양 젠더 질서에서 남성성을 반영한 것이다.

### III.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남성 정치

수잔 제퍼즈(Susan Jeffords)는 레이건 시대의 몸을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성병, 부도덕성, 불법 화학약품, 게으름 등을 담고 있는 나약한 몸을 ‘소프트바디(soft body)’라고 지칭했다. 반면 힘, 노동, 결단력, 충성심, 용기를 감싸고 있는 표준적인 몸인 ‘하드바디(hard body)’는 레이건 시대의 철학·정치·경제의 상징이 되었다.<sup>17)</sup>

하드바디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건 시대와 할리우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건 정부가 주창한 강한 남성성은 1980년대 당시 할리우드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마치 일치하듯이 유사하다. 이렇게 신화적 영웅주의를 내세운 영화는 <로보캅 RoboCop>(1981), <람보 First Blood>(1982), <터미네이터 The Terminator>(1984), <리썰 웨폰 Lethal Weapon>(1987), <다이하드 Die Hard>(1988) 등이 있으며 모두 관객의 주목을 이끌어냈다.

제퍼즈에 따르면, 레이건 시대 가장 인기 있는 아이콘은 바로 실버스터 스텔론(Sylvester Stallone)이 연기한 람보(Rambo)일 것이다.<sup>18)</sup> 이미 스텔론은 <로키 Rocky> 시리즈를 통해 하드바디를 구축했으며 람보는 이보다 진일보한 신화적 남성이다. 비록 디즈니는 당시 1980년대 레이건 시대의 헤게모

15) Connell, 앞의 책, pp.76-81.

16) Connell, 앞의 책, p.37.

17) Jeffords, Susan, 1994, p.43.

18) Jeffords, Susan, 앞의 책, p.48.

니적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커다란 햇불이 꺼지며 할리우드 영화에서조차 점차 하드바디가 사라지자, 디즈니는 다시 한 번 레이건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어 들어갔다. 예를 들면, <타잔 Tarzan>(1999)의 타잔, <인크레더블 The Incredibles>(2004)의 Mr. 인크레더블, <헤라클레스 Hercules>(1997)의 헤라클레스, <미녀와 야수>의 야수와 개스톤(Gaston), <알라딘 Aladdin>(1992)의 알라딘, <잠자는 숲속의 미녀 Sleeping Beauty>(1959)의 필립(Philip)<sup>19)</sup>, <노틀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1996)의 피버스(Phoebus), <몰란 Mulan>(1998)의 상(Shang), <포카혼타스 Pocahontas>(1995)의 존(John), <인어 공주 The Little Mermaid>(1989)의 에릭(Eric) 등의 인물들은 하드바디를 가진 인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까지 겸비하고 있다.



그림 1. 디즈니의 헤게모니적 남성 캐릭터

한편, 미국 남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은 다른 남성에게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호모포비아(homophobia)는 미국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있어서 중심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sup>20)</sup> 이들이 가진 공포는 바로 스스로 느낄 치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남성들은 자신의 두려움

19) 필립의 경우 1990년대를 전후로 한 디즈니 작품은 아니지만, 다른 작품들과 유사하게 사회적 계급인 왕자라는 신분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Mr. 인크레더블은 2000대에 제작되었지만, 1990년대 디즈니의 하드바디와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다른 남성성에 대한 공포적 인식은 모순적으로 그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보이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타자에 대한 공포는 완벽하지 않은 남성성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대상에는 여성, 게이, 남성 이민자, 유색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21)</sup> 그러므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호모포비아 등의 공격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적 검열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기도 한다. 바로 철저한 무관심 또는 이들의 출현을 철저히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타자의 출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관심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처한 공포의 발로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디즈니에서도 이러한 미국 남성의 타자에 대한 공포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이성애적 로맨스,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중시, 고전적 성역할에 대한 집착 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디즈니가 완벽하게 이러한 흐름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안했던 간에 일부 디즈니 작품에서 동성애적인 요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이온 킹 The Lion King>(1994)의 미어캣 티몬(Timon)과 흑멧돼지 품바(Pumbaa)는 디즈니 첫 번째 게이 커플로 볼 수 있으며, <인어공주>에서 우슬라(Ursula)는 레즈비언처럼 보인다. 그리고 <알라딘>의 자파(Jafar)와 <라이온 킹>의 스카(Scar) 또한 게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70여년이 넘는 디즈니의 역사적 궤적에서 이러한 작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한 미국 남성 사회의 타자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타자에 대한 공포는 양적 접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빈센트 파헨티(Vincent Faherty)는 디즈니 영화 19편<sup>22)</sup>을 선택해서 이들 영화에 나타난 캐릭터를 남성, 여성, 인종 등의 범주를 통해 출현 빈도를 분석했다. 또한 이들 캐릭터의 역할을 영웅과 악당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편의 영화에서 총 334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있다. 이 중 남성이 212개로 63%, 여성이 93개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9%인 29개의 캐릭터는 성구분이 쉽지 않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성인은 150개로 45%, 청소년은 56개로 17%, 어린이가 24개로 7%, 그리고 노인은 30개로 9%를 점유하고 있다. 334개의 캐릭터 중에서 76%인 255개 캐릭터는 출연 비중이 현저히 낮았으며, 주요 비중 있는 인물은 79개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악당과 이들 무리는 75개로 22%를 차지했으며, 남녀 영웅과 이들의 친구들은 230개로 69%를 보였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디즈니의 캐릭터가 대부분 유럽계 미국인 또는 유럽인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23)</sup>

20) Kimmel, Michael, 2000, p.103.

21) Kimmel, Michael, 앞의 책, p.106.

22) 이 표본은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를 정리한 디즈니사의 1998 *Fact Book*(1998)을 참고했으며, 이곳에 없는 네 편의 최근작도 포함시켰다. *The Lion King,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Aladdin, Cinderella, Toy Story, Beauty and the Beast, The Little Mermaid, Bambi, Pocahontas, The Jungle Book, Peter Pan, 101 Dalmations, The Fox and the Hound, Pinocchio, Lady and the Tramp, Hunchback of Notre Dame, Hercules, Mulan, and Tarzan.*

23) Faherty, Vincent E., August 2001, pp.2-3.

인종	개수	점유율(%)
아프리카계 미국인	1	0.03
인디언	9	2.7
아랍인	8	2.4
아시아인	17	5.1
유럽인	126	37.7
유럽계 미국인	33	9.9
히스패닉	1	0.03
동물/물건	135	40.4
미정	4	1.2

표 1. 인종별 디즈니 캐릭터<sup>24)</sup>

#### IV. <미녀와 야수>에서 나타난 남성성

제퍼즈가 언급했듯이,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는 1980년대 미국 남성의 하드바디에서 1990년 사례 깊고, 사랑스럽고, 자기희생적인 남성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남성(the new man)’이라고 지칭했다. 그의 몸은 12마리의 늑대를 물리칠 정도로 강하고,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벨(Belle)을 보호할 정도로 포근하지만, 벨의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하고, 주변사람에게 권위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성에게 있어서 야수의 이러한 몸은 선물이 아닌 저주에 지나지 않다는 점이다. 제퍼즈에 의하면 다수의 남성은 야수의 이러한 하드바디를 욕망하지만, 이것은 저주의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sup>25)</sup> 제퍼즈는 <유치원에 간 사나이 Kindergarten Cop>(1991)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남성의 출현을 기대했다.<sup>26)</sup> 이 영화에서 1980년대 스탠론과 더불어 하드바디의 또 하나의 축인 아놀드 슈와츠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과거의 하드바디를 숨기고 부드러운 남성성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여기서 재현된 그의 이미지는 양가(형사로서의 하드바디와 유치원 교사로서의 소프트바디)적 역색함을 자아내지만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화학적 변화를 거쳐 중화됨을 인식할 수 있다. 제퍼즈와 같은 입장으로 수잔 해티(Suzanne Hatty)에 따르면, 레이건 이후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1980년대의 근육을 과시하는 남성에서 탈피하여 보다 감각적인 남성 영웅주의(sensitive masculine heroism)를 재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sup>27)</sup>

이러한 남성성의 시대별 변화와 관련해서 로빈 맥캘럼(Robyn McCallum)은 <미녀와 야수>를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첫째, 하드바디는 남성성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오만과 편견은 결과적으로 저주의 화살로 되돌아오게 된다. 왕자의 경우는 야수가 되는

24) Faherty, Vincent E., 앞의 책, p.4.

25) Jeffords, Susan, 1995, pp.170-171.

26) Jeffords, Susan, 앞의 책, p.161.

27) McCallum, Robyn, 2002, p.117.

굴레를 개스틴에게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거운 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디즈니는 야수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학습(learning to love)하게 했다. 강한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것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 개스틴이나 야수가 되기 전의 왕자의 경우처럼 헤게모니적 남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쟁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지만, 결코 이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요정이 제시한 왕자의 저주를 푸는 절대 조건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즈니는 벨, 야수, 그리고 개스틴을 통해서 사랑의 삼각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감각적인 새로운 남성을 내세운 야수와 전통적이고, 마초적이며, 하이퍼남성성(hypermasculinity)을 가진 개스틴을 통해서 이러한 충돌을 조장한 것이다.<sup>28)</sup>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성성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코넬이 규정한 남성 그룹에서의 헤게모니 관계를 <미녀와 야수>에서 살펴보면, 헤게모니를 가진 남성은 개스틴과 야수로 이들이 가진 헤게모니의 충돌은 전체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헤게모니 영역은 처음부터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들 헤게모니 간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어진다. 원래 헤게모니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그 영역이 다르게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 침범은 마치 전쟁처럼 서로 죽이는 치킨게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헤게모니가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는 경우 헤게모니의 충돌은 멈출 수 없다.

먼저, 헤게모니를 가진 인물로 개스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전형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이다. 다시 말해서, 강한 힘을 상징하는 하드바디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가 헤게모니적 남성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각인시킨다. 영화에서 그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lucky girl I'm going to marry(나와 결혼할 행운의 아가씨).  
 The most beautiful girl in town(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지).  
 And that makes her the best(그녀는 최고의 미녀).  
 And don't I deserve the best(난 언제나 최고만 좋아하지)?  
 It's not right for a woman to read... soon she starts getting ideas... and thinking(여자가 책을 보면 따지는 게 많아져서 안 돼).  
 As a specimen, yes, I'm intimidating(그래. 이 몸은 남자론 완벽하지!)  
 As you see I've got biceps to spare(보다시피 난 힘이 넘쳐).  
 And every last bit of me's covered with hair(내 가슴엔 이렇게 털이 많아!)  
 So I'm roughly the size of a barge(우람한 알통 좀 봐)!

여기서 개스틴이 가진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가장 이상적인 남자로 생각하고, 어떤 여성이든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는 자신만의 남성 신화를 생산하고 있다.

---

28) McCallum, 앞의 책, pp.117-118.

한편, 공모적 남성성을 가진 사람은 르포(LeFou)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에 사는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리에서 개스톤의 남성성에 대한 여러 인물의 감탄어린 부러운 시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개스톤이라는 헤게모니적 남성의 주변에서 늘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르포는 공모적 남성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주변의 다른 공모적 남성들과 함께 그에 대한 용비어찬가를 읊조리며 위대한 개스톤을 운운하고 있다.

Every guy here'd love to be you, Gaston(모두 널 부러워하지, 개스톤).  
 Even when taking your lumps(그러니 용기를 내).  
 There's no man in town as admired as you(마을 사람 모두가 자넌 좋아해).  
 You're everyone's favorite guy(넌 멋있는 사나이야).  
 Everyone's awed and inspired by you(모두가 널 믿고 따르는 건)  
 And it's not very hard to see why(척 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No one's slick as Gaston, no one's quick as Gaston(아무라도 안 돼. 누구라도 안 돼).  
 No one's next as incredibly thick as Gaston(이런 우람한 체격을 못 따라가).  
 For there's no man in town half as manly Perfect(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 해).  
 And they'll tell you who's team they'd prefer to be on(모두 너같이 힘세고 싶어 할 걸!)  
 No one's got a swell cleft in his chin like Gaston(이런 완벽한 남자는 없을 거야).

직접적으로 동성애적인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녀와 야수>에서는 종속된 남성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마을에서 다른 이웃들과의 교감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벨의 아버지 모리스(Maurice)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소프트바디를 가졌기 때문에 헤게모니적 남성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개스톤과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없다. 개스톤과 마을 사람들은 결국 그를 미쳤다고 정신병동에 강제수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헤게모니적 남성과 공모적 남성이 자신들의 규범대로 그를 종속된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남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종속된 이미지를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은 산속 어둠의 성에 살고 있는 야수이다. 비록 요정의 저주를 받았지만, 괴물처럼 보이는 외모에서 충분히 헤게모니적 남성이 가지고 있는 하드바디를 엿볼 수 있다. 그를 따르는 공모적 남성성은 성에서 함께 살고 있는 콕스워스(Cogsworth)와 뤼미에(Lumiere) 등으로 그들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인물들이다. 비록 그들은 사회적 신분으로 그 특징이 지정되지만, 이러한 계급차가 결국 공모적 남성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화된 남성성을 가진 사람으로 야수를 들 수 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산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류 사회와 교류할 수 없고 언제나 어두운 성에서 지내야 했다. 이는 한 국가에서 소수 민족 또는 인종이 겪는 주변화된 삶과 결코 다르지 않다.

## V. 나오는 글

지금까지 그람시가 언급한 대로 지배적 이념이 한 사회에 종속된 이들의 삶에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남성성의 유형을 찾아보았다. 이와 같이 헤게모니적 관점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대중문화는 지배 그룹과 피지배 세력 사이에 제공되는 교류의 장이다. 이것은 젠더나 세대, 인종, 지역과 같은 여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중문화는 이러한 합병과 저항 사이의 알력, 다시 말해서 지배층의 이해관계를 보편화시키려는 시도와 피지배층의 저항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문화적 교류와 협상에 의해 구성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측면에서 1980년대 할리우드의 신화적 남성들인 람보, 터미네이터, 로보캡 등의 하드바디는 레이건 시대의 종식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한 반면, 1990년 전후의 디즈니는 잊어져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전복을 멈추고 소프트바디의 범람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타잔, 헤라클레스, 야수, 알라딘, 피버스, 상, 개스틴 등의 하드바디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코넬의 네 가지 남성성의 분류는 남성 그룹이라는 범주에서 지배 그룹과 피지배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그리고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미녀와 야수>에 나타난 지배적 남성성과 피지배적 남성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스틴과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 모두 공모적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모리스는 지배 집단으로부터 거세된 종속적 남성성에 들어가게 되며, 야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모두를 지닌 양가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디즈니 속에 나타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기반으로 소프트바디에 의한 하드바디의 번복을 더디게 만들고 오히려 하드바디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성국,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사회비평』 제5권(1991.4), p.217.
- Beynon, John, *Masculinities and culture*, Open University Press, 2002.
- Bly, Robert, *Iron John: A book about men*, Addison-Wesley, 1990.
- Cockburn, Cynthia, *In the way of women: Men's resistance to sex equality in organizations*, Macmillan, 1991.
- Connell, R. W. & Messerschmidt, J. W, "Hegemonic masculinity: Rethinking the concept", *Gender Society*, Vol. 19, No. 6. (December 1, 2005), pp.829-859.
- Connell, R. W., *Masculi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Dominelli, L. & Gollins, T. "Men, Power and Caring Relationships", *The Sociological Review*, Vol. 45, No. 2. (1997), pp.398-415.
- Faherty, Vincent E., "Is the mouse sensitive? A study of race, gender, and social vulnerability in Disney animated films", *Journal SIMILE: Studies In Media &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29) Storey, John, 앞의 책, p.174.

- Vol. 1, No. 3(August 2001), pp.1-8.
- Frank, Bale, "Hegemonic heterosexual masculinity",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24(1987), pp.59-170.
- Gramsci, Antonio, & Hoare, Q,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awrence & Wishart, 1971
- Jeffords, Susan. "The curse of masculinity: Disney's Beauty and the Beast", in Bell, Elizabeth, Lynda Haas, & Laura Sells, (eds.), *From mouse to mermaid: the politics of film, gender, and cul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161-172.
- Jeffords, Susan, *Hard Bodies: Hollywood Masculinity in the Reagan Era*,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 Kimmel, Michael. "Masculinity as homophobia", in Disch, Estelle, (ed.), *Reconstructing gender: A multicultural anthology*, McGraw Hill, 2000, pp.103-109.
- Leach, Mick, "The politics of masculinity: An overview of contemporary theory", *Social Alternatives*, Vol. 12, No. 4, 1994, pp.36-37.
- McCallum, Robyn, "Masculinity as social semiotic identity politics and gender in Disney animated films", in Stephens, John, (ed.), *Ways of being male: Representation masculinities in children's literature and film*, Routledge, 2002, pp.116-132.
- Storey, John, *An introduction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omon & Schuster, 1993. 박모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리스트**

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1937),

Pinocchio(1940), Dumbo(1941), Bambi(1942), Make Mine Music(1946), The Adventures of Ichabod and Mr. Toad(1949), Cinderella(1950),

Alice in Wonderland(1951), Peter Pan(1953), Lady and the Tramp(1955), Sleeping Beauty(1959),

One Hundred and One Dalmatians(1961), The Sword in the Stone(1963), The Jungle Book(1967), The Aristocats(1970),

Robin Hood(1973), The Many Adventures of Winnie the Pooh(1977), The Rescuers(1977),

The Fox and the Hound(1981), The Black Cauldron(1985), The Great Mouse Detective(1986), The Brave Little Toaster(1987), Oliver & Company(1988), The Little Mermaid(1989), Duck Tales the Movie: Treasure of the Lost Lamp(1990), The Rescuers Down Under(1990),

Beauty and the Beast(1991), Aladdin(1992), The Lion King(1994), A Goofy Movie(1995), Pocahontas(1995), Toy Story(1995), The Hunchback of Notre Dame(1996), Hercules(1997), Mulan(1998), A Bug's Life(1998), Doug's 1st Movie(1999), Tarzan(1999), Toy Story 2(1999), The Tigger Movie(2000), Dinosaur(2000), The Emperor's New Groove(2000),

Recess: School's Out(2001), Atlantis: The Lost Empire(2001), Monsters, Inc.(2001), Return to Never Land(2002), Lilo & Stitch(2002), Treasure Planet(2002), The Jungle Book(2003), Piglet's Big Movie(2003), Finding Nemo(2003), Brother Bear(2003), Teacher's Pet(2004), Home on the Range(2004), The Incredibles(2004), Pooh's Heffalump Movie(2005), Valiant(2005), Chicken Little(2005), Bambi II(2006), The Wild(2006), Cars(2006),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2006), Meet the Robinsons(2007), Ratatouille(2007), WALL-E(2008), Tinker Bell(2008), Roadside Romeo(2008), Bolt(2008), Up(2009), Tinker Bell and the Lost Treasure(2009), A Christmas Carol(2009), The Princess and the Frog(2009).

## ABSTRACT

### **Hegemonic Masculinity in Disney Animated Films**

Aramchan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hegemonic masculinity in Disney animated feature films in terms of Antonio Gramsci's hegemony and R. W. Connell's hegemonic masculinity. According to Gramsci, hegemony refers to the predominance of a dominant group over other groups. By the same token, Connell uses the term hegemony as the configuration of gender practice which embodies the domination of men and the subordination of women. He describes four masculinities to explore male hierarchy in male groups: hegemonic masculinity, subordinated masculinity, complicit masculinity, and marginalized masculinity. Through Connell's terms, this study investigates masculinities in Disney films, especially *Beauty and the Beast* (1991) in relation to hegemonic masculinity. As a result, Disney describes repeatedly hegemonic masculinity as hard body defined by Susan Jeffords and supports tacitly the domination of a specific male group.

Keyword: hegemony, masculinity, Disney, Gramsci, Connell, *Beauty and the Beast*

이아람찬  
목원대 영화영상학부 시간강사  
(472-86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동부센트레빌 112동 703호  
010-9869-8810 / isness@empal.com

논문투고일: 2010.05.15

심사종료일: 2010.06.13

게재확정일: 2010.06.13